

세계적인 무용가 겸 안무가인 김민호의 무용 공연을 소개합니다.

임핑 나이나스터 컨트리 클럽

- 광주 - 동광명IC 구간 광복동역사관
- (매일 오후 10시 ~ 11시 30분 공연)
- 무천시 9월 이후 특별요청정체 실시
- 예약 : www.hpdynasty.co.kr 0801-320-7700



投

◀ 임준혁 ▶ 이범석 ▶

‘위기에서 빛난 KIA의 희망’ KIA 타이거즈가 주전들의 잇단 부상으로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올 시즌 최희섭에 이어 서재응, 리마, 발테스까지 가세하면서 수월

할 것으로 점쳐졌던 KIA의 4강 길은 ‘빅 리거’들의 추락으로 험난한 가시밭길에 뒀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부상의 악재 속에 꺼져가는 KIA의 4강 불씨를 살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 ‘희망 4인방’으로 떠오른 신에 이범석·임준혁 그리고 투기 김선빈·나지완이 위기의 팀을 구원하기 위해 나섰다.



잇단 주전 부상 공백때 ‘구원병’ 역할
투·타 맹활약... 주전으로 자리매김

최하위의 암흑 속에서 빛을 발한 건 ‘싱싱투’ 이범석이었다. 리마가 퇴출설과 함께 2군으로 내려간 사이 선발 임무를 맡은 이범석은 5월 7일 153km의 직구와 143km의 슬라이더를 앞세워 삼성을 상대로 프로 데뷔 4년 만에 첫 승을 거머쥐었다. ‘깜짝 스타’로 발돋움한 이범석은 이후 선발 자리를 지키며 팀의 탈골

찌를 견뎠다. 리마의 복귀와 이범석의 활약으로 안정을 찾았던 마운드는 6월 중순 윤석민·이대진·서재응이 차례차례 무너지면서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이번에는 임준혁이 재평가를 받았다. 올 시즌 중간계투로 나와 5.27의 평균자책점으로 부진했던 임준혁은 지난달 21일 두산전 대타 선발로 나왔다. 중간계투진의 난조로 자신의 생애 첫 선발승을 눈앞에서 놓치지

만 5이닝 동안 4피안타 2실점의 호투로 자신의 선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27일에는 롯데 막강 타선을 5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면서 선발승을 거두고 팀 4강에 다시 무게를 실어주었다.

김선빈은 올 시즌 KIA의 가장 큰 수확이다. 2루 백업 요원이었던 김선빈은 빅리거 발데스의 퇴출과 함께 불박이 유격수로 자리를 굳혔다. 김선빈은 1일 현재 66경기에서 0.272의 타율과 0.365의 출루율, 31득점으로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불안하던 수비도 안정되면서 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던 유격수 자리에 새 대안을 제시했다. 오랜 2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나지완은 자신에게 온 두 번째



打

◀ 나지완 김선빈 ▶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개막전 4번 타자로 등극했던 나지완은 시즌 전 반 이렇다할 활약을 하지 못한 채 1군과 2군을 오르내렸다.

지난달 27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1회 부상을 입은 김원섭을 대신해 투입된 나지완은 4타수 3안타의 맹타를 휘두르며 복귀전에서 2타점을 신고했다. 29일에는 롯데 선발 조정훈을 상대로 자신의 프로 데뷔 첫 홈런을 터뜨리면서 최희섭과 이재주가 빠진 KIA타선에 새로운 거포 탄생을 알렸다.

KIA는 절체절명의 위기마다 구원병이 등장하면서 4강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 4강의 마지막 고비 7월, ‘희망 4인방’의 활약에 따라 팀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지역 연고
프로축구팀 창단
불발 가능성 커

광주지역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시한이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제16구단’ 창단이 불발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의 프로축구단 창단 작업이 지지부진하면서 2009년까지 광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 축구팀 창단을 조건으로 축구연맹에 납부했던 40억원의 시비도 공중 분해 위기에 놓였다.

지난 5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김원동 사무총장은 “프로축구단 창단이 불발될 경우 광주에서 상무를 철수할 수밖에 없다”며 “이사회 결정을 거쳐 새로운 프로팀을 창단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의 일침에 따라 창단 시한이 남을 경우 상무의 연고지 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사무총장은 또 창단 작업이 불발에 그칠 경우 축구연맹 가입비 명목으로 냈던 40억 원도 연맹에 귀속하겠다고 못 밝히 40억원에 이르는 시비의 한 방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창단 시한 앞으로 5개월

특별한 대책 없이 답보

연맹측 “안되면 상무팀 철수”

광주시는 경제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사정상 5~10개 정도의 기업이 합류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시민구단 창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더 이상 창단에 관련한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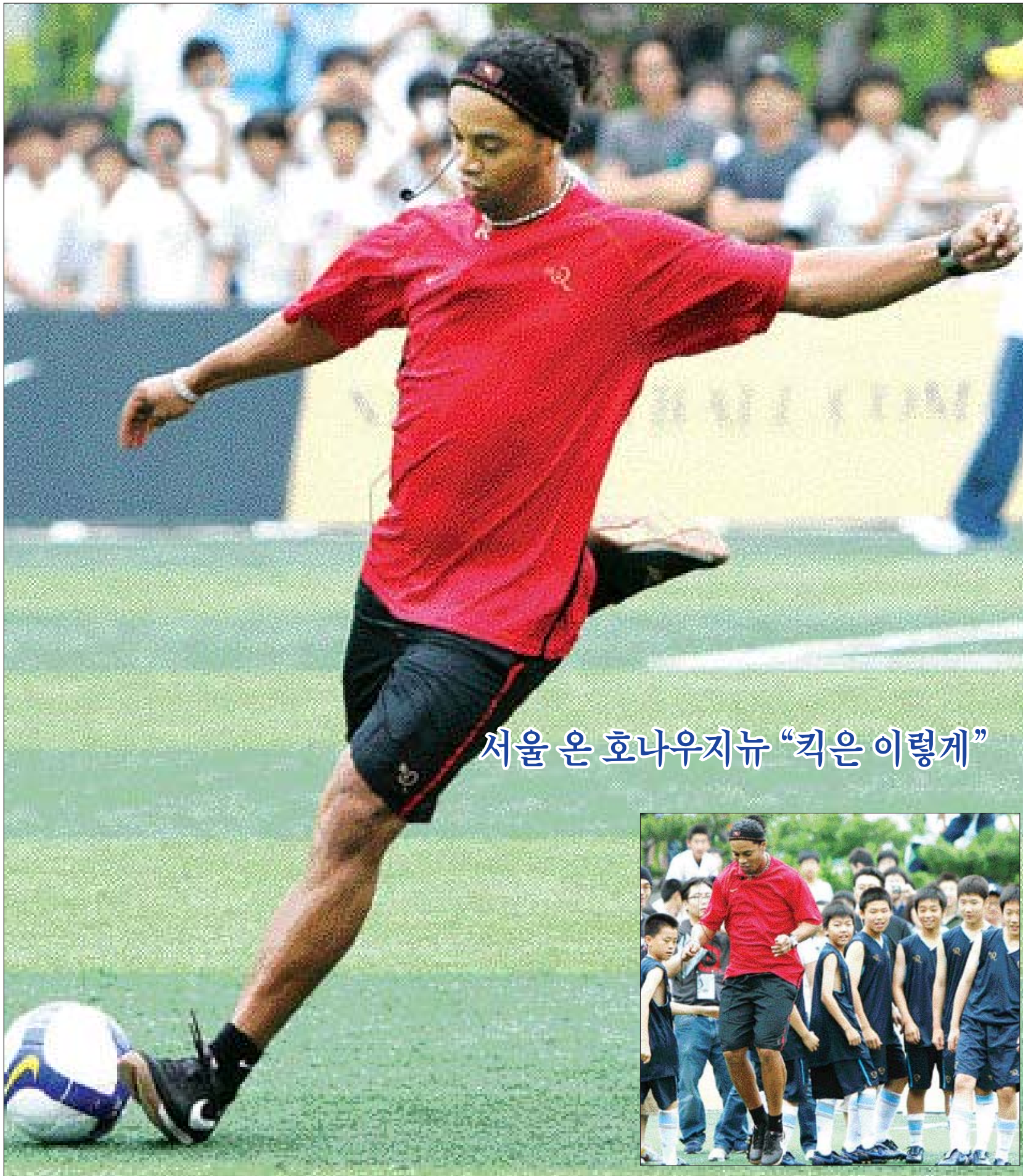
이렇다할 묘안 없는 광주시의 더딘 행보와 달리 프로축구단 창단에 나선 강원도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무대 광주는 ‘축구 불모지’의 불명예를 떠안게 될 위기에 처했다.

한편 ‘제15구단’ 창단 의사를 밝힌 강원도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강원도는 2일 춘천시 중앙로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도민프로축구단(가칭 강원FC) 창단 집행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축구단 발기인 구성과 법인 설립, 사무국 출범, 자원 마련 대책, 불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는 12월 창단을 목표로 하는 강원FC는 이달 안에 창단 발기인 총회와 법인 설립, 사무국 구성을 마치고 도민주 공모와 스폰서 영입, 코칭스태프 및 선수단 구성 등 절차를 거쳐 10월 중에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창단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강원FC가 법인 설립 후 14명 내외로 사무국 구성을 마치면 창단 작업은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된다. 프로축구연맹도 지난달 열린 이사회에서 10월 신인 드래프트 때 강원FC에 14명을 우선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력 지원에 나선 상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서울 온 호나우지뉴 “킵은 이렇게”

축구화 ‘니키 호나우지뉴 도이스 FG’의 출시에 맞춰 방한한 호나우지뉴가 2일 서울 성동구 응봉동 광희중학교에서 축구부원들과 함께 슈팅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랭킹 133위’ 中 정지에 4강 진출 ‘대파란’ 윌블던테니스

여자프로테니스(WTA) 랭킹 133위에 불과한 정지예(25·중국·사진)가 윌블던테니스대회 단식 4강에 진출했다.

클럼에서 열린 대회 8일째 여자단식 8강전에서 니콜 바이디소바(22위·체코)를 2-1(6-2 5-7 6-1)로 물리치고 준결승에 올랐다. 2004년 프랑스오픈에서 중국인 최초로 메이저대회 단식 4회전에 올랐던 정지예는



이번엔 4강 고지조 맨 처음 밟으며 중국 테니스 역사에 또 한 획을 그었다.

한때 세계 27위까지 올랐지만 지난해 해 발목 부상으로 고생한 탓에 순위가 내려간 정지예는 윌블던 와일드카드를 받고 나와 준결승까지 오른 최초의 선수가 됐다.

“7일까지 납입금 미납면
규약 따른 응분의 조치”

KBO, ‘우리’에 최후 통첩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가입금 납입을 미루고 있는 신생팀 우리 히어로즈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일성 KBO 사무총장은 지난 1일 저녁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이장석 우리 구단 사장과 자정이 가깝도록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7일까지 가입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야구 규약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에서 이장석 사장은 지난 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했던 1차분 가입금 24억원 중 12억원은 2일 납부하겠다고 나섰지만 나머지 12억원은 KBO와 새로운 계약을 맺은 뒤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장석 사장은 목동구장 개보수 비용으로 들어간 40억원을 전체 가입금에서 120억원에서 빼 줄 것을 새로운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KBO는 어떤 추가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이장석 사장은 지난 달 25일 열린 8개구단 사장단 조찬 간담회에서도 가입금 1차 납입시기를 올스타전(8월3일)까지 늦춰 줄 것을 요청했지만 신상우 KBO 총재를 비롯해 참석한 사장들 대부분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BO는 만약 히어로즈가 7일까지 1차 납부금 24억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야구규약 12조에 따라 법정탈퇴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찬호 행운의 시즌 4승



볼펜으로 돌아간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박찬호(35)가 행운의 구

원승으로 시즌 4승째를 따냈다.

박찬호는 2일 텍사스주 휴스턴 미니메이드파크에서 열린 휴스턴 에스트로스와의 방문경기 6-6으로 맞선 9회말 팀의 5번째 투수로 등판해 1과 3분의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승리투수가 됐다.

이로써 통산 116번째 승리를 거둔 박찬호의 시즌 성적은 4승2패1세이브가 됐다. 평균자책점은 2.52에서 2.45로 낮아졌다.

지난달 28일 선발로 나서 23개월만의 선발승을 거둔 박찬호는 볼펜으로 복귀한 첫 등판에서 성공적인 투구로 무언의 시위를 펼쳤다.

모두 17개의 공을 던진 가운데 12개가 스트라이크존에 꽂혔고,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95마일(152km)까지 찍혔다. 9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조 바이렐로부터 공을 물러받은 박찬호는 첫 타자 헨터 펜스에게 내야 안타를 맞았지만 후속 랜스 버크만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고 불을 껐다.

다저스는 이어진 11회초 제프 켄트가 상대 웨슬리 라이트로부터 왼쪽 펜스를 넘기는 홈런을 쳐 7-6을 만들고 박찬호에게 승리를 안겼다. 마무리 투수 사이토 다카시는 박찬호에 이어 11회말을 삼자범퇴로 막고 승리를 지켰다.